

열정과 시스템 그리고 소통 안전관리의 삼박자 완벽 구현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제품을 열거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산업구조의 급변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각종 전자제품에서 ‘스마트’란 수식어가 붙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애용하는 제품이 있다. 도브, 렉스, 폰즈, 바세린, 립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오늘의 주인공인 유니레버코리아(주)다. 1985년 합작회사로 국내에 처음 진출한 유니레버코리아(주)는 1993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생산설비를 갖춘 대전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이곳에서는 샴푸류, 비누류,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과 아이스티 식품류를 제조해 나가면서 한국시장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 그야말로 기업 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힘을 이끌어 냈을까.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 관계자들은 그 중심에 안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9002(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고히 한 가운데 경영진들의 높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나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생산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곳 안전관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공정 맞춤형 안전관리 전개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에서는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갖가지 설비가 들어서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곧 기계·기구에 의한 충돌·협착 등의 재해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안전성이 입증된 첨단 설비들이 도입돼 있는 한편 공정도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작업 진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과 전도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진행될 때 반드시 안전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작업 전·중·후 체조 등을 실시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의 토대 '정리정돈'

이곳 안전관리의 핵심은 '5S'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만큼 정리정돈을 안전관리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작업 중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또 정리정돈과 청결을 철저히 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5S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들게 됐다.

물론 더 큰 효과도 볼 수 있었다. 5S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스스로가 안전관리자라는 자세로 현장의 동선 및 작업 공간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 참여 적극 유도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 안전관리의 가장 큰 특색은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이 전사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장 전반의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먼저 매니저, 관리자 등으로 모델 그룹을 형성해 TPM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후에는 이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집중했다. 즉 사업장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간 것이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 이에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에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활동성과가 우수한 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만큼 안전활동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이곳의 안전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에 해나가는 교육·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이처럼 철저한 안전관리는 경영진의 높은 안전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 역시 안전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 모든 미팅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안전의식은 회사를 뛰어넘어 지역 사회에도 발현되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나눔 보따리 전달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고, ‘유니레버코리아 일일가게’를 운영해 수익금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근로자, 기업의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확보하고 있는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전공장. 이곳 안전관리가 모범 사례로 널리 퍼져 나간다면 무재해 대한민국의 실현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mini interview



최윤호 공장장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의식 필요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들은 절대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안전의식이 필수인 것이

지요. 여기에 더해 경영진들은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매 순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와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활동을 이끌어 나갈 안전조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뤄나간다면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영진들의 안전의식이 필수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